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ily Life of Young Children*

서소정(So-Jung Seo)¹⁾

하지영(Ji-Young Ha)²⁾

이성옥(Sung-Ok Lee)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daily life patterns of young children and to compare the lives of children using a center-based care center with those of children raised at home by their mothers. The subjects, 364 mothers of young children (aged 7~48 month olds), completed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items on their children's daily activitie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hi*-tests, and *t*-tests. Our primary findings indicated that on the average children slept for 10 hour 22 minutes and they usually played with their mothers at home. The young children mostly played outdoors two or three days per week and their outings were most commonly visits to relatives on weekends. 45.5% of the total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made use of at least one private education service, and they began to watch TV from 12.22 month olds. Furthermore, the mothers reported that their spouses participated in child rearing less than 1 hour a day.

Key Words : 영유아의 일상생활(Daily Life of a Child), 기관보육(Child Care), 가정양육(Home Car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아동중심적 교육신념(Child-Centered Parenting Belief).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 동안 영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환

* 본 연구는 2008년도 강남구보육정보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임.

¹⁾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²⁾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³⁾ 강남구보육정보센터 센터장

Corresponding Author : So-Jung Seo, Child & Family Major,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E-mail : seosojun@khu.ac.kr

경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형민 · 박성연 · 서소정, 2008; Berk, 2002).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주도하고 있는 개체인 영유아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환경, 즉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형제, 부모 및 가정이라는 미시환경 내에서 접촉하고 경험하게 되는 대상, 사건, 활동 등에 보다 초점을 두고 발달의 지속적인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발달의 주체인 영유아들이 미시체계 내에서 전개되는 일상의 경험에서 자신과 주변세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영유아기 발달의 진정한 의미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으로 가정, 놀이터, 교육기관 등의 미시체계를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그들의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생태학적 접근과 더불어 발달의 주체인 인간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서 근접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중시하는 Vygotsky의 사회 · 문화적 접근은 우리사회의 영유아의 일상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사회 · 문화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Vygotsky, 1978, 1987). 따라서 영유아의 일상은 영유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식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이들의 일상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Rogoff, 1990). 즉 영유아가 자

라하고 있는 상황적 맥락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다양한 생활을 포함한 하루 일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상호작용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의 보편적인 맥락을 탐색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Palacios, Gonzalez, & Moreno, 1992).

일상생활에 대한 개념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Elias (1978, 김현정, 2007 재인용)는 일상생활의 개념을 용어자체가 내포하는 연속성, 규칙성, 반복성의 특징에 기초하여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과 생활양식은 “일상”이라는 용어 속에서는 무의식적이고 무반성적인 생활의 리듬으로 자리매김된다(일상문화연구회, 1998).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되는 동시에 우리가 처한 사회를 구조화하는 일의 연속으로 간주된다(이기숙 · 박은혜 · 김희진 · 김현정, 2004). 그동안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거대담론에 밀려 상대적으로 연구의 주체로서 인간의 일상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기존의 거시적인 사회 · 경제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사회구성원의 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상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현정, 2007).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밝히는 유아의 일상생활 모습은 어머니의 도움과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외보다는 실내 놀이에 치중되고,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가 놀이,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영, 2005; 이기숙 · 박은혜 · 김희진 · 김현정, 2004). 또한 대부분의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며 방과

후에는 학습 활동이나 조기교육을 위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영, 2005; 이기숙·박은혜·김희진·김현정, 2004;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영유아들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컴퓨터, 인터넷, 영어와 같은 부분들이 현재의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송민영(2005)의 연구는 유아의 일상생활은 이전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변화인 핵가족화와 산업화, 여성의 취업, 저출산이라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반영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취업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영유아와 다른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모 가정의 유아는 불가피하게 어머니의 부재상황을 맞게 되며, 어머니를 대신하는 대리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사회적인 영유아보육 또는 교육기관이나 가족 내 조부모 등 주변의 친지에 의해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선미, 2005).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꾸준한 증가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알아보면 0세는 3.2%, 1세는 13.3%, 2세는 31%, 3세는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4).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기관보육보다는 재가양육을 선호하며, 나아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에서 종일제로 운영되는 보육일과와는 달리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가 일과를 계획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관보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유아들과는 다른 일상생활을 경험하리라고 본다. 즉 주양육자에 의해 계획된 하루일과 속에서 영유아는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신변처리와 관련된 활동들, 놀이(또래친구) 및 나들이 활동, 조기교육과 전자매체 접촉, 잠자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가까운 곳에 친인척이 거주하여 왕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보다 폭넓은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동일연령대에 속한 영유아들이 속해 있는 근접환경(가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비교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아동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취학 전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관경험(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초점을 두어 왔다(김현정, 2007; 송민영, 2005; 이기숙·박은혜·김희진·김현정, 2004). 그러나 주로 가정/재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가정마다 다른 상황에서 양육되는 이들의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기관보육을 경험하는 동일연령대에 속한 다른 영아들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영유아들의 삶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컴퓨터나 게임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경험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영유아들의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현

재 기관보육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일상의 모습을 비교분석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양육 및 보육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보육과 교육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의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관보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유아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유아의 조기사교육 이용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서울시 G구에 거주하는 7~48개월의 영유아 36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 영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의 성별은 남아 183명(50.3%), 여아 181명(49.7%)이었고, 월령의 평균은 33.14개월($SD=10.306$)이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유무별로는 기관보육 영유아의 월령이 평균 35.25개월($SD=9.858$), 가정양육 영유아는 평균 30.65개월($SD=10.293$)이었다.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 또는 외동아인 경우가 61.5%(224명)로 가장 많은 수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둘

째인 경우가 29.9%(109명), 셋째 이상인 경우가 5.0%(18명)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대상 영유아의 가정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영유아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 81.3%(296명)였으며, 다음으로는 빌라가 9.1%(33명),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6.9%(25명), 단독주택 2.5%(9명)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방 유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녀방이 있는 경우는 49.5%(180명), 자녀방이 없는 경우는 50.0%(182명)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00~500만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36.3%(1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800만원 28.0%(102명), 800만원 이상 20.3%(74명), 200~300만원 9.9%(36명), 200만원 이하 3.3%(12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평균 연령 37.07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 34.52세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50.0%(182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의 학력은 37.9%(138명),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5%(20명), 고등학교 졸업의 이하의 경우는 4.9%(18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4.7%(199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 28.0%(102명), 2년제 대학 졸업 10.2%(37명), 고등학교 졸업 6.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이 26.4%(9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기술직은 16.5%(60명), 자영업과 일반판매 종사자 16.8%(61명), 전문직 11.3%(41명), 일반 사무종사자 11.3%(41명), 계장급 이하 공무원 또는 회사원 8.0%(29명)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1.2%(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기술직 18.4%(67명),

관리직 8.2%(30명), 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6.6%(24명), 일반 사무종사자 6.3%(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종일제 근무인 경우가 40.1%(146명)이었으며, 시간제 근무는 13.2%(48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선행연구(김현정, 2003)를 기초로 설문초안을 작성하였다.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보완하였다. 첫째, 보다 어린 연령의 영아와 관련된 문항들(예 : 수유, 이유식, 기저귀사용법 등)이 추가되었다. 두번째로는, 48개월 이하 가정에서 재가양육을 경험하는 영유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예 : 시간제 프로그램 이용, 또래관계 등)이 보완되었다.

본 조사는 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보육용 설문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관보육용 설문지와 가정양육용 설문지의 내용은 동일하며, 기관보육용 설문지에는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설문지는 총 150여 문항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배경질문

배경질문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가족 및 부모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는 영유아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시 키와 몸무게, 장애여부, 출

생순위, 가족구성원과 돌보는 사람, 자녀방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가족 및 부모에 대한 문항으로는 거주지역, 주거형태, 부모의 연령과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문항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신변처리 관련 활동, 놀이 및 나들이활동, 조기 교육 활동, 전자매체 관련 활동,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잠자리 관련 활동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문항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기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 놀이활동, 나들이활동, 조기사교육 현황, 전자매체 활동, 아버지의 육아참여와 관련된 일부 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1)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심층면접

설문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G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대상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취업모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취업모이면서 대리양육자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비취업모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비취업모이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차례에 걸쳐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다양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선행연구(김현정, 2003)와 더불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였다.

2) 설문지 초안 완성 및 예비조사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예

<표 1>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II-1 신변처리 관련활동	1. 기상시간 2. 기상방법 3. 기상활동 4. 수유방법 5. 이유식 시작 시기 6. 이유식 종류 7. 아침식사 방법 8. 식사 도움 여부 9. 식사습관 10. 기저귀 사용 여부 11. 오전 낮잠시간 12. 옷입기 및 벗기 13. 옷 선택 방법 14. 오후간식 횟수 15. 오후간식 종류 16. 오후간식 방법 17. 오후 낮잠시간 18. 저녁식사 시간 19. 저녁식사 방법 20. 외식 횟수 21. 건강진단 여부 22. 입원 경험	II-2 놀이 및 나들이 활동	1. 평일 놀이대상 2. 주말 놀이대상 3. 놀이활동 유형 4. 책 보유량 5. 놀잇감, 도서대여경험 6. 책 읽어주는 횟수 7. 책 읽어주는 시기 8. 책 읽어주는 시간 9. 유형별 놀잇감 유무 10. 실외놀이 횟수 11. 평일 실외놀이 장소 12. 주말 실외놀이 장소 14. 실외놀이 이동시간 14. 나들이장소 및 횟수	II-3 조기교육 활동	1.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2. 어린이집 보내는 이유 3.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 요인 4. 희망 어린이집 여부 5. 어린이집 만족도 6. 어린이집 만족 이유 7. 어린이집 불만족 이유 8. 어린이집 기대 교육 9. 조기사교육 이용 여부 10. 조기사교육 과목, 시작 시기, 방법, 횟수, 만족도 11. 사교육 이용 이유 12. 사교육 만족 이유 13. 사교육 불만족 이유 14. 한달 교육비 15. 한달 사교육비 16. 사교육비 부담 정도 17. 교육비 마련 노력 18. 사교육 미이용 이유 19. 추후 사교육 의향 20. 사교육 희망 시작시기
II-4. 전자매체 관련활동	1. 전자매체 유형별 처음 접한 시기, 사용시간, 함께 사용하는 사람, 사용 장소, 종류	II-5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1. 아버지 퇴근시간 2. 아버지 참여활동 3. 평일 아버지참여시간 4. 주말 아버지참여시간 5. 아버지-영유아 친밀도 6. 평일 형제자매 놀이시간 7. 주말 형제자매 놀이시간 8. 형제자매 놀이장소 9. 형제자매 놀이활동 10. 형제자매-영유아 친밀도 11. 기타가족구성원 12. 평일 기타가족 놀이시간 13. 주말 기타가족 놀이시간 14. 기타가족 놀이장소 15. 기타가족 놀이활동	II-6 잠자리 관련활동	1. 잠자리 들기 전 활동 2. 함께 자는 사람 3. 잠자리 드는 시간 4. 잠자리 활동 유형 및 함께 하는 사람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G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1곳의 협조를 구하여 40명의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응답률이 낮거나 응답이 모호한 문항 등

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고, 문항의 배열을 정리하여 총 150여 문항을 포함하는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아동학 전공 교수 1명, 유아교육 전공 교수 1명, 보

육현장 유경험자이면서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2명으로부터 설문문항의 초안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본조사

기관보육용 설문지는 G구 보육정보센터의 협조 하에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가정양육용 설문지는 시간제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복지관, 백화점 문화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388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24부를 제외하고 기관보육용 설문지 197부, 가정양육용 설문지 167부, 총 36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영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기관보육 영유아와 가정양육 영유아의 일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본 연구대상 영유아의 평일 기상시간은 평균 7시 52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평균 9시 30분이었다. 기관보육 영유아와 가정양육 영유아의 기상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X^2=19.292$, $df=4$, $p=.001$), 기관보육 영유아의 경우 8~9시 기상이 가장 많았으며(44.2%), 다음으로 7~8시가 많았으나(38.1%), 가정양육 영유아의 경우에는 8~9시 기상(41.3%), 9~10시 기상(25.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기관양육 영유아와 가정양육 영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고). 평균 기상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조사대상 영유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10시간 22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평일 기상시간

	기관보육(N=197)		가정양육(N=167)		전체(N=364)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7시 이전	6	3.0	7	4.2	13	3.6
7~8시	75	38.1	39	23.4	114	31.3
8~9시	87	44.2	69	41.3	156	42.6
9~10시	27	13.7	43	25.7	70	19.2
10시 이후	2	1.0	9	5.4	11	3.0

$X^2=19.292$, $df=4$, $p=.001$

<표 3> 잠자리에 드는 시간

	기관보육(N=195)		가정양육(N=165)		전체(N=360)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9시 이전	9	4.6	16	9.7	25	6.9
9~10시	54	27.7	40	24.2	94	26.1
10~11시	88	45.1	70	42.4	158	44.0
11~12시	34	17.4	24	14.5	58	16.1
12시 이후	10	5.1	15	9.1	25	6.9

$\chi^2=6.364, df=4, p=.174$

2. 놀이활동

음으로 가상놀이(27.3%), 블록놀이(15.5%), 몸놀이(1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 놀이유형

조사대상 영유아들의 놀이유형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기관보육 영유아의 경우 가상놀이(27.1%)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블록놀이(20.8%)이며, 책보기(13.5%), 몸놀이(10.9%), TV, DVD 시청(9.9%), 그림그리기(7.8%), 악기연주, 노래, 율동(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양육 영유아의 경우 책보기(29.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

2) 놀이대상

조사대상 영유아들이 평일과 주말에 함께 놀이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평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머니와 놀이한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21.3%), 기타(19.6%), 또래(14.4%), 아버지(8.0%)의 순으로 함께 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유무에 따라서는 기관보육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

<표 4> 놀이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관보육	가정양육	기관보육	가정양육	기관보육	가정양육
	N (%)	N (%)	N (%)	N (%)	N (%)	N (%)
가상놀이	52 (27.1)	44 (27.3)	28 (14.7)	20 (12.1)	16 (8.8)	16 (9.8)
블록놀이	40 (20.8)	25 (15.5)	32 (16.8)	38 (23.0)	21 (11.6)	21 (12.9)
그림그리기	15 (7.8)	6 (3.7)	18 (9.5)	23 (13.9)	18 (9.9)	19 (11.7)
악기연주, 노래, 율동 등	10 (5.2)	6 (3.7)	13 (6.8)	28 (17.0)	30 (16.6)	16 (9.8)
몸놀이	21 (10.9)	23 (14.3)	8 (4.2)	13 (7.9)	10 (5.5)	11 (6.7)
말놀이	2 (1.0)	2 (1.2)	11 (5.8)	6 (3.6)	4 (2.2)	3 (1.8)
책보기	26 (13.5)	47 (29.2)	42 (22.1)	20 (12.1)	37 (20.4)	30 (18.4)
TV, DVD시청	19 (9.9)	7 (4.3)	28 (14.7)	14 (8.5)	33 (18.2)	23 (14.1)
야외놀이	4 (2.1)	1 (.6)	10 (5.3)	2 (1.2)	10 (5.5)	18 (11.0)
기타	3 (1.6)	0 (.0)	0 (.0)	1 (0.6)	2 (1.1)	6 (3.7)
응답자수	192 (100.0)	161 (100.0)	190 (100.0)	165 (100.0)	181 (100.0)	163 (100.0)

$\chi^2=22.910, df=9, p=.006$ $\chi^2=27.790, df=9, p=.001$ $\chi^2=10.368, df=9, p=.322$

<표 5> 평일과 주말 영유아의 놀이대상(중복응답)

구분	평일 놀이대상			주말 놀이대상		
	어린이집 이용 유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유무		전체
	기관보육	가정양육		기관보육	가정양육	
N (%)	N (%)	N (%)	N (%)	N (%)	N (%)	
어머니	77 (39.5)	108 (64.7)	185 (51.1)	102 (52.0)	106 (64.2)	208 (57.6)
아버지	15 (7.7)	14 (8.4)	29 (8.0)	69 (35.2)	65 (39.4)	134 (37.1)
형제자매	55 (28.2)	22 (13.2)	77 (21.3)	55 (28.1)	20 (12.1)	75 (20.8)
또래	41 (21.0)	11 (6.6)	52 (14.4)	0 (.0)	1 (.6)	1 (.3)
기타	32 (16.4)	39 (23.4)	71 (19.6)	14 (7.1)	6 (3.6)	20 (5.5)
응답자수	195 (53.9)	167 (46.1)	362 (100.0)	196 (54.3)	165 (45.7)	361 (100.0)

(39.5%), 형제자매(28.2%), 또래(21.0%) 등의 순으로, 가정양육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64.7%), 기타(23.4%), 형제자매(13.2%) 등의 순으로 함께 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말에 함께

놀이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놀이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가 37.1%로 평일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즉 평일과 주말 모두 영유아의 놀이대상은

<표 6> 실외놀이 횟수

구분	기관보육	가정양육	전체
	N (%)	N (%)	N (%)
매일	16 (8.3)	26 (16.1)	42 (11.9)
2~3일에 한번	54 (28.1)	65 (40.4)	119 (33.7)
4~5일에 한번	41 (21.4)	22 (13.7)	63 (17.8)
6~7일에 한번	53 (27.6)	21 (13.0)	74 (21.0)
거의 하지 않는다.	28 (14.6)	27 (16.8)	55 (15.6)
전체	192 (100.0)	161 (100.0)	353 (100.0)

$\chi^2=20.419, df=4, p=.000$

<표 7> 평일 실외놀이 장소

구분	기관보육	가정양육	전체
	N (%)	N (%)	N (%)
집근처 놀이터	102 (53.7)	101 (65.2)	203 (58.8)
집근처 공원	44 (23.2)	27 (17.4)	71 (20.6)
정원	1 (.5)	4 (2.6)	5 (1.4)
집근처 학교 운동장	3 (1.6)	5 (3.2)	8 (2.3)
어린이집 놀이터	32 (16.8)	10 (6.5)	42 (12.2)
기타	8 (4.2)	8 (5.2)	16 (4.6)
전체	190 (100.0)	155 (100.0)	345 (100.0)

$\chi^2=14.498, df=5, p=.013$

<표 8> 실외놀이 이동시간

구분	기관보육	가정양육	전체
	N (%)	N (%)	N (%)
5분 이내	56 (29.6)	62 (39.5)	118 (34.1)
5~10분	59 (31.2)	42 (26.8)	101 (29.2)
10~20분	33 (17.5)	18 (11.5)	51 (14.7)
20~30분	19 (10.1)	15 (9.6)	34 (9.8)
30분 이상	22 (11.6)	20 (12.7)	42 (12.1)
전체	189 (100.0)	157 (100.0)	346 (100.0)

$\chi^2=5.229, df=4, p=.265$

어머니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정양육 영유아들이 기관보육 영유아들에 비해 어머니와 놀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외놀이활동

본 조사대상 영유아들의 실외놀이 횟수는 대체로 2~3일에 한 번 정도였으며(33.7%), 가정양육 영유아(40.4%)가 기관보육 영유아(28.1%)보다 실외놀이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0.419, df=4, p=.000$, <표 6> 참고). 평일 실외놀이 장소는 집근처 놀이터(58.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근처 공원(20.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실외놀이를 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전반적으로 5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4.1%), 다음으로 5~10분(29.2%), 10~20분(14.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표 9> 나들이 장소 및 횟수

(N=364)

구분	전체		기관보육		가정양육		χ^2
	0회	1회 이상	0회	1회 이상	0회	1회 이상	
	N (%)	N (%)	N (%)	N (%)	N (%)	N (%)	
박물관, 미술관	268 (73.6)	96 (26.4)	150 (76.1)	47 (23.9)	118 (70.7)	49 (29.3)	$\chi^2=1.400, df=1, p=.144$
도서관	275 (75.5)	89 (24.5)	155 (78.7)	42 (21.3)	120 (71.9)	47 (28.1)	$\chi^2=2.278, df=1, p=.083$
서점	190 (52.5)	174 (47.5)	113 (57.4)	84 (42.6)	77 (46.1)	90 (53.9)	$\chi^2=4.587, df=1, p=.021$
놀이공원	210 (57.7)	154 (42.3)	113 (57.4)	84 (42.6)	97 (58.1)	70 (41.9)	$\chi^2=.019, df=1, p=.487$
숲	146 (40.1)	218 (59.9)	75 (38.1)	122 (61.9)	71 (42.5)	96 (57.5)	$\chi^2=.743, df=1, p=.225$
산,바다	236 (64.8)	128 (35.2)	123 (62.4)	74 (37.6)	113 (67.7)	54 (32.3)	$\chi^2=1.084, df=1, p=.176$
친척방문	118 (32.4)	246 (67.6)	69 (35.0)	128 (65.0)	49 (29.3)	118 (70.7)	$\chi^2=1.333, df=1, p=.149$

3. 나들이활동

한 달에 1회 이상 나들이 가는 장소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나들이 장소로는 친척방문(67.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숲(59.9%), 서점(47.5%), 놀이공원(4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에 한 번도 나들이를 가지 않는 장소는 도서관(75.5%), 박물관이나 미술관(73.6%), 산과 바다(6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점 방문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chi^2=4.587, df=1, p=.021$),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53.9%)가 기관보육 영유아(42.6%)에 비해 서점을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기사교육 현황

본 조사대상의 조기사교육 이용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조기사교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영유아는 45.5%였으며, 기관보육 이용 영유아는 35.8%, 가정양육 영유아는 57.2%가 조기사교육을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사교육 이용 실태를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1>와 같으며, 조기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신

<표 10> 조기사교육 이용 유무 (N=352)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무		전체 N (%)
	기관보육	가정양육	
	N (%)	N (%)	
있다	69 (35.8)	91 (57.2)	160 (45.5)
없다	124 (64.2)	68 (42.8)	192 (54.5)
전체	193 (100.0)	159 (100.0)	352 (100.0)

$\chi^2=16.226, df=1, p=.000$

체활동의 평균 19.54개월($SD=9.37$)로 시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악 22.44개월($SD=10.06$), 창의성 22.93개월($SD=6.70$), 몬테소리 23.50개월($SD=9.17$), 미술 26.16개월($SD=10.30$), 한글 27.04개월($SD=10.36$), 영어 27.07개월($SD=9.85$), 수학 30.65개월($SD=9.19$)에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양육 영유아가 기관보육 영유아보다 더 일찍 조기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사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한글(78.9%), 몬테소리(70.0%), 수학(39.1%), 영어(31.6%)는 가정방문교사, 음악(61.6%)은 문화센터, 미술(50.0%), 창의성(42.9%), 수학(30.4%)은 학원,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활동의 경우 학원이나 전문기관(41.5%), 문화센터(41.5%)를 많이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가계에서 조기사교육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표 11> 조기사교육 과목별 이용실태

구분	한글	영어	은물	몬테소리	오르다	음악	미술	태권도	요가	발레	수학	창의성	신체활동
	N=71	N=57	N=38	N=10	N=9	N=54	N=37	N=1	N=4	N=12	N=26	N=14	N=57
기관보육	M 30.49 (SD) (10.51)	30.42 (8.54)	29.25 (9.100)	24.33 (12.10)	32.33 (6.66)	29.36 (9.34)	28.09 (9.31)	36.00 (.0)	24.50 (16.26)	34.00 (.0)	36.71 (6.873)	27.40 (6.84)	24.43 (11.65)
조기 사교육 시작 시기	M 24.10 (SD) (9.38)	25.39 (10.13)	22.77 (8.61)	23.14 (8.76)	29.33 (8.17)	20.67 (9.54)	25.35 (10.76)	.0 (.0)	23.00 (15.56)	30.45 (11.16)	28.42 (9.057)	20.44 (5.48)	17.95 (8.03)
t	2.800**	1.856	2.120*	.178	.546	2.706**	.736	-	.094	.304	2.190*	2.089	2.333*
전체	M 27.04 (SD) (10.36)	27.07 (9.85)	24.82 (9.17)	23.50 (9.17)	30.33 (7.42)	22.44 (10.06)	26.16 (10.30)	36.00 (.0)	23.75 (13.02)	30.75 (10.69)	30.65 (9.19)	22.93 (6.70)	19.54 (9.37)

<표 11> 계속

구분	한글		영어		은물		몬테소리		오르다		음악		미술		태권도		요가		발레		수학		창의성		신체활동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방문교사	56	(78.9)	18	(31.6)	20	(62.5)	7	(70.0)	4	(50.0)	1	(1.9)	4	(11.8)	-	-	-	-	-	-	-	9	(39.1)	2	(14.3)	1	(1.9)				
학원, 전문기관	3	(4.2)	6	(1.5)	4	(12.5)	1	(10.0)	3	(37.5)	15	(27.8)	17	(50.0)	-	-	-	-	-	-	-	2	(15.4)	7	(30.4)	6	(42.9)	22	(41.5)		
문화센터	2	(2.8)	7	(12.3)	1	(3.1)	-	-	-	-	33	(61.1)	8	(23.5)	-	-	-	-	3	(100.0)	9	(69.2)	5	(21.7)	4	(28.6)	22	(41.5)			
조기 사교육 방법 어린이집	1	(1.4)	12	(21.1)	3	(9.4)	2	(20.0)	-	-	2	(3.7)	2	(5.9)	1	(100.0)	-	-	-	-	1	(7.7)	-	-	1	(7.1)	8	(15.1)			
부모지도	9	(12.7)	13	(22.8)	3	(9.4)	-	-	1	(12.5)	1	(1.9)	1	(2.9)	-	-	-	-	-	-	-	2	(8.7)	1	(7.1)	-	-				
기타	-	-	1	(1.8)	1	(3.1)	-	-	-	-	2	(3.7)	2	(5.9)	-	-	-	-	-	-	1	(7.7)	-	-	-	-					
전체	71	(100.0)	57	(100.0)	32	(100.0)	10	(100.0)	8	(100.0)	54	(100.0)	34	(100.0)	1	(100.0)	3	(100.0)	13	(100.0)	23	(100.0)	14	(100.0)	14	(100.0)	53	(100.0)			
주당 교육횟수	M	1.38	2.46	1.20	2.80	1.67	1.22	1.33	1.00	1.00	1.00	1.00	1.36	1.31	1.15																
	(SD)	(.92)	(1.90)	(.47)	(3.49)	(1.41)	(.70)	(.82)	(.0)	(.0)	(.0)	(.0)	(.85)	(.75)	(.41)																
만족도	M	3.58	3.81	3.87	3.89	4.00	4.22	4.06	5.00	3.50	4.27	3.81	4.00	4.16																	
	(SD)	(.86)	(.80)	(.62)	(.60)	(.58)	(.65)	(.90)	(.0)	(1.00)	(.47)	(.83)	(.47)	(.71)																	

*p<.05 **p<.01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0.1%), 이는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나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비용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는 부모의 경제활동 65.8%, 생활비용 절감 23.4%, 조부모의 경제적 지원 7.6% 등으로 응답

하였다(<표 12> 참고).

5. 전자매체 활동

<표 12> 조기교육비 및 가계부담 정도와 교육비용 마련 노력

구분		월평균 소득			어린이집 이용 유무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기관보육	가정양육	전체		
		N (%)	N (%)	N (%)	N (%)	N (%)	N (%)		
한달 교육비	10% 미만	39 (51.3)	53 (49.5)	92 (50.3)	37 (48.1)	57 (51.8)	94 (50.3)		
	10-20%	25 (32.9)	37 (34.6)	62 (34.6)	31 (40.3)	32 (29.1)	63 (33.7)		
	20% 이상	12 (15.8)	17 (15.9)	29 (15.8)	9 (11.7)	21 (19.1)	30 (16.0)		
	전체	76 (100.0)	107 (100.0)	183 (100.0)	77 (100.0)	110 (100.0)	187 (100.0)		
				$\chi^2=.06, df=2, p=.968$			$\chi^2=3.35, df=2, p=.187$		

<표 12> 계속

구분	월평균 소득			어린이집 이용 유무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기관보육	가정양육	전체	
	N (%)	N (%)	N (%)	N (%)	N (%)	N (%)	
한달 조기 사교육비	5% 미만	45 (59.2)	70 (68.6)	115 (64.6)	49 (65.3)	69 (63.9)	118 (64.5)
	5-10%	25 (32.9)	26 (25.5)	51 (28.7)	24 (32.0)	28 (25.9)	52 (28.4)
	10% 이상	6 (7.9)	6 (5.9)	12 (6.7)	2 (2.7)	11 (10.2)	13 (7.1)
	전체	76 (100.0)	102 (100.0)	178 (100.0)	75 (100.0)	108 (100.0)	183 (100.0)
$\chi^2=1.69, df=2, p=.429$			$\chi^2=4.11, df=2, p=.128$				
가계부담 정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9 (24.7)	31 (29.8)	50 (27.6)	17 (23.3)	34 (30.1)	51 (27.4)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25 (32.5)	25 (24.0)	50 (27.6)	22 (30.1)	30 (26.5)	52 (28.0)
	그저 그렇다	20 (26.0)	25 (24.0)	45 (24.9)	17 (23.3)	29 (25.7)	46 (24.7)
	조금 부담스럽다	10 (13.0)	21 (20.2)	31 (17.1)	15 (20.5)	17 (15.0)	32 (17.2)
	매우 부담스럽다	3 (3.9)	2 (1.9)	5 (2.8)	2 (2.7)	3 (2.7)	5 (2.7)
	전체	77 (100.0)	104 (100.0)	181 (100.0)	73 (100.0)	113 (100.0)	186 (100.0)
$\chi^2=3.59, df=4, p=.464$			$\chi^2=1.83, df=4, p=.766$				
교육비 비용마련 노력	부모의 경제활동	44 (58.7)	75 (72.1)	119 (66.5)	60 (80.0)	61 (56.0)	121 (65.8)
	생활비용의 절감	22 (29.3)	18 (17.3)	40 (22.3)	14 (18.7)	29 (26.6)	43 (23.4)
	저축의 보류	2 (2.7)	2 (1.9)	4 (2.2)	1 (1.3)	3 (2.8)	4 (2.2)
	조부모의 지원	5 (6.7)	9 (8.7)	14 (7.8)	0 (.0)	14 (12.8)	14 (7.6)
	기타	2 (2.7)	0 (.0)	2 (1.1)	0 (.0)	2 (1.8)	2 (1.1)
	전체	75 (100.0)	104 (100.0)	179 (100.0)	75 (100.0)	109(100.0)	184 (100.0)
$\chi^2=7.10, df=4, p=.130$			$\chi^2=16.52, df=4, p=.002$				

본 조사대상 중 TV를 접해 본 영유아는 (SD=7.88), 사용시간은 평일 평균 1.40시간(SD=83.2%였으며, 처음 접한 시기는 평균 12.22개월 (.86), 주말 평균 1.98시간(SD=1.40)이었다. 주로 어

<표 13> 전자매체 활동

구분	TV	비디오	컴퓨터	게임기		
	N=364	N=364	N=364	N=364		
전자매체 경험 유무	아직 접하지 않음	36 (9.9)	109 (29.9)	189 (51.9)	292 (80.2)	
	접함	303 (83.2)	226 (62.1)	134 (36.8)	25 (6.9)	
	무응답	25 (6.9)	29 (8.0)	41 (11.3)	47 (12.9)	
처음 접한 시기	M(SD)	12.22 (7.88)	16.44 (8.47)	23.50 (10.33)	30.73 (10.34)	
사용시간	평일	M(SD)	1.40 (.86)	1.06 (.71)	.81 (.52)	.70 (.35)
	주말	M(SD)	1.98 (1.40)	1.18 (.63)	1.10 (.68)	.80 (.27)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거실	N(%)	250 (68.7)	179 (49.2)	50 (13.7)	15 (4.1)
	침실	N(%)	36 (9.9)	28 (7.7)	30 (8.2)	4 (1.1)
	어린이집 등 기관	N(%)	3 (0.8)	4 (1.1)	1 (0.3)	3 (0.8)
	기타	N(%)	4 (1.1)	211 (58.0)	41 (11.3)	22 (6.0)
	무응답	N(%)	71 (19.5)	153 (42.0)	242 (66.5)	342 (94.0)

<표 13> 계속

구분			TV	비디오	컴퓨터	게임기
			N=364	N=364	N=364	N=364
주로 사용하는 종류	교육용	N(%)	199 (54.7)	149 (40.9)	66 (18.1)	19 (5.2)
	교육용 외	N(%)	88 (24.2)	57 (15.7)	52 (14.3)	4 (1.1)
	무응답	N(%)	77 (21.2)	158 (43.4)	246 (67.6)	341 (93.7)
함께 사용하는 사람 (중복응답)	어머니	N(%)	195 (46.2)	123 (44.2)	68 (42.5)	6 (21.4)
	아버지	N(%)	92 (21.8)	45 (16.2)	34 (21.3)	5 (17.9)
	형제·자매	N(%)	99 (23.5)	74 (26.6)	45 (28.1)	11 (39.3)
	혼자서	N(%)	12 (2.8)	21 (7.6)	9 (5.6)	4 (14.3)
	기타	N(%)	24 (5.7)	15 (5.4)	4 (2.5)	2 (7.1)
	전체	N(%)	422 (100.0)	278 (100.0)	160 (100.0)	28 (100.0)

머니와 함께(46.2%), 거실에서 시청하며(68.7%), 교육용 자료를 많이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54.7%)(<표 13> 참조).

6. 아버지의 육아참여

평일 및 주말에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표 14>와 같다. 전반적으로 평일의 경우 30분 미만 참여 30.6%, 30분~1시간 30.1%로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2시간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이 56.9%였다. 아버지의 육아참여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

버지의 육아참여활동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신체놀이를 한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책읽기가 61.8%, 장난감 가지고 놀기가 58.2%, TV 시청이 57.1%, 목욕 49.9%, 밥(우유) 먹이기 43.2%, 기저귀 갈기 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평일 및 주말 아버지 참여시간

구분	평일 아버지 참여시간			주말 아버지 참여시간		
	어린이집 이용 유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유무		전체
	기관보육	가정양육		기관보육	가정양육	
	N (%)	N (%)	N (%)	N (%)	N (%)	N (%)
참여하지 않음	28 (14.6)	25 (15.0)	53 (14.8)	3 (1.6)	3 (1.8)	6 (1.7)
30분 미만	61 (31.8)	49 (29.3)	110 (30.6)	12 (6.3)	13 (7.9)	25 (7.0)
30분~1시간	60 (31.3)	48 (28.7)	108 (30.1)	33 (17.2)	22 (13.3)	55 (15.4)
1~2시간	24 (12.5)	31 (18.6)	55 (15.3)	34 (17.7)	34 (20.6)	68 (19.0)
2시간 이상	19 (9.9)	14 (8.4)	33 (9.2)	110 (57.3)	93 (56.4)	203 (56.9)
전체	192 (100.0)	167 (100.0)	359 (100.0)	191 (100.0)	165 (100.0)	357 (100.0)
	$\chi^2=2.733, df=4, p=.603$			$\chi^2=1.631, df=4, p=.80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G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7~48개월)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의 경향을

<표 15> 아버지 육아참여활동(중복응답)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무		전체
	기관보육	가정양육	
	N (%)	N (%)	
목욕	110 (57.3)	69 (41.3)	179 (49.9)
기저귀 갈기	59 (30.7)	57 (34.1)	116 (32.3)
밥(우유)먹이기	89 (46.4)	66 (39.5)	155 (43.2)
책읽기	121 (63.0)	101 (60.5)	222 (61.8)
TV시청	112 (58.3)	93 (55.7)	205 (57.1)
장난감 가지고 놀기	112 (58.3)	97 (58.1)	209 (58.2)
장난감 없이 놀기(신체놀이)	143 (74.5)	111 (66.5)	254 (70.8)
기타	13 (6.8)	6 (3.6)	19 (5.3)
참여하지 않음	6 (3.1)	9 (5.4)	15 (4.2)
전체	192 (53.5)	167 (46.5)	359 (100.0)

살펴보고, 기관경험과 가정에서 재가양육을 경험하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영유아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7시 52분이며, 평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9시 30분으로 평균 수면시간이 10시간 22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보육 영유아와 가정양육 영유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수면은 영유아의 건강 및 신체발달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애착관계 및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령전기 영유아에게 필요한 수면량이 최소 12시간인 점을 감안한다면 영유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취침시간

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영유아들은 평일과 주말 모두 어머니와 놀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정양육 영유아들은 기관보육 영유아들에 비해 어머니와 놀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평일에는 놀이를 거의 함께하지 못하나, 주말에는 어머니 다음으로 놀이를 많이 하는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요즘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프렌디(friendly)¹⁾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가 유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양육의 질과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음에도 현대사회의 취업모들은 자녀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Belsky, 1984). 또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수재·이영환, 2007).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영유아와 보내는 비취업모와 영유아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아버지 모두를 위해 실제로 부모 또는 주양육자에게 상호작용방법과 놀이방법을 지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영유아의 놀이유형을 살펴보면, 기관보육 영유아들이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하는 반면, 가정양육 영유아들의 놀이는 주로 책읽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지내는 유아들이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들에 비해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박준선(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보육 및 육아 담당센터의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프렌디는 친구(friend)와 아빠(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한다. 조선일보 2009. 6. 25.

셋째, 실외놀이의 경우 조사대상 영유아들은 대체로 2~3일에 한 번 실외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양육 영유아가 기관보육 영유아보다 실외놀이를 자주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외에서는 실내 환경과 다른 발달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실외에서의 놀이 경험도 실내에서의 놀이 경험과 같이 영유아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들이 실내·외 놀이 공간 모두에서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현경(2007)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실외 놀이 환경이 부족하며 실외놀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히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일이나 주말 모두 집에서 5분 이내에 위치한 놀이터나 공원에서 영유아들의 실외놀이가 이루어진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나 공원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가 요구되며,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다양한 종류의 조기사교육은 교육을 받는 대상들의 수적인 팽창뿐 아니라 연령이 하향화 되어가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조기사교육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조기사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연구에서도 약 86%의 유아들이 조기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 2세의 영아들조차도 조기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4가지 이상의 조기사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약 21%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10가지 이상의 조기사교육을 받는 유아들도 있었다(박수진, 2001; 안지영, 2003;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1). 조기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의 부모들이 조기교육비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을 느끼며, 사교육비의 부담감을 해결할 방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요구하였다고 보고한 임유경(2003)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조사가 재정자립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특정 지역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므로 해석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기교육 실시 유형의 다양화 및 수적 팽창, 그리고 연령의 하향화 추세로 특징지을 수 있는 본 조사결과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령기 사교육 광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기의 경우 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되, 바람직한 영유아기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조기교육의 의미와 준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제고와 수립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영유아기의 전자매체 노출 시기가 점차적으로 하향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기의 전자매체 노출 시기에 관한 Singer와 Singer(2001)의 연구에서는 영아들이 처음 TV를 접하는 시기는 생후 6~12개월 사이로, 하루 1~2시간 정도 TV에 노출되고, 또 2세 영아의 1/4, 4세 유아의 2/3가 하루에 2~4시간 정도 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시청에 있어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비디오 보유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비디오를 TV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절반

이 넘는 유아는 하루 1시간 이상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01). 그러나 제한 없는 TV 시청이나 TV와 실제와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인의 부재, TV 프로그램과 관련한 성인의 중재가 없는 시청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낮은 성취수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Pierce, 1994), 전자매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전자매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특성을 지니므로 유아를 수동적, 소극적,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므로 부모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문혁준, 2004).

본 연구는 영유아들의 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영유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보육 이용 유무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생활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영유아들의 삶은 제각각 매우 다양하므로 보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영유아들의 일상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재정자립도가 상위에 속하는 특정 지역구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대상들을 포함하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상황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일상을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분석해보고, 특히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의 생활을 비교해 봄으로써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육아 및 보육, 교육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 김현정(2003).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정(2007).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 서남재단 국제 유아교육 심포지엄, 59-94.
- 문혁준(2001). 유아의 비디오 시청에 있어 부모의 태도 및 관여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3), 11-23.
- 문혁준(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TV/비디오 시청 중재와 아동발달특성. **아동학회지**, 25(1), 47-60.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준선(2005).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민영(2005).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유아기 일상생활 차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이기숙·박은혜·김희진·김현정(2004). 우리나라 유아의 하루일과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연구**, 24(3), 163-188.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수재·이영환(2007).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

- 의 자녀 양육참여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3), 1-17.
- 이현경(2007). 실내·외 놀이환경에서 걸음마기 영아의 놀이행동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97-121.
- 이형민·박성연·서소정(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임유경(2003). 영아기 조기·특기교육의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일상문화연구회(1998). **일상속의 한국문화 : 자기성찰의 사회학 2**. 서울 : 나남.
- 통계청(2004). 보육통계.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k, L. (2002).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Boston, MA : Allyn & Bac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Pierce, P. L. (1994). *Technology Integration Into Early Childhood Curricula : Where We've Been, Where We Are, Where We Should Go*. Chapel Hill, NC : Center for Literacy and Disability Studies.
- Palacios, J., Gonzalez, M., & Moreno, M. (1992). Stimulating the child in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The Role of parents' ideas. In I. Sigel, A. McGillicuddy-DeLisi, &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Second Edition)*(pp.71-9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inger, D. G., & Singer, J. L. (2001). *Handbook of Children and the Media*. Thousand Oaks, CA : Sage.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87).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ky, vol. 1* (R.W. Rieber & A.S. Carton, eds.). New York : Plenum Press.

2009년 8월 31일 투고, 2009년 10월 22일 수정
2009년 11월 17일 채택